

치 사

생명의 기운이 세상 만물에 행복을 전하여, 싱그럽고 정겨움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절기에 소중한 인연들과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을 함께하게 되어 반가움과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느새 4년차에 접어든 행복바라미는 그동안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나아가 각박한 세상에서 인성을 회복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구조적 모순과 각종 병리현상 등, 불합리한 사회풍토가 만연하지만, 면면부절한 자비의 정신문화가 살아 있고 참여의 역동성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정갈하게 하고 실천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행복바라미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

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비와 참여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케 하여, 나와 너, 어려운 이와 돕는 이, 모두가 행복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좋은 벼이 되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이들이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건 낼 수 있는 용기를 키우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축제로 발돋움하여 보살행이 가득한 세상으로 성큼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내외빈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뜻 깊은 오늘의 소중함으로 온 세상에 행복과 나눔을 싹틔우고, 꿈과 희망의 꽃향기가 널리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4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